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28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1월 16일 (음력 11월 30일) 화요일

‘구멍 뚫린’ 전남 시 방역망... 확산방지 주력

전남도가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지 않은 시·군까지 이동통제소독초소를 확대 설치하고 신규 입식 농가에 대한 절차를 강화하는 등 AI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AI 미발생 12개 시군에 이동통제소독초소 54개소를 확대 운영한다.

이동초소는 순천 7, 담양 7, 곡성 3, 구례 2, 보성 10, 화순 3, 해남 7, 무안 2, 함평 5, 영광 2, 장성 4, 진도 2곳 등이 추가 설치됐다.

이로써 이동통제소독초소가 117곳에서 171곳으로 늘어났다.

또 거점소독→이동통제소독초소→농장

이동통제소독초소 ‘확대’ · 입식절차 ‘강화’

무허가 축사가금류 입식 금지...도 적극 개입

출입구 소독→농장주 소독 등 4단계 방역 시스템을 운영한다.

오리사육농장의 신규 입식 신고때 전남도의 점검과 확인 과정을 여러번 거치는 등 처리 절차가 3단계에서 5단계로 강화한다.

기존에 시·군에서 신고 접수하면 동물시험소 AI검사를 거친 후 시·군이 농장점검 후 승인을 해왔다.

하지만, 이제 시·군에서 신규 입식을 접수하면 도로 보고하고 동물시험소의 AI 검사 후 시·군 점검과 도 보고 후 최종 승인 절차를 밟는다.

또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절차를 밟고 있는 전남도는 이날부터 무허가 축사에 대한 가금류 입식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농가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날 현재 전남지역 무허가 축사는 총 3631곳으로 이 가운데 1459곳(41.3%)이 적법화됐다. 닭 157곳, 오리 116곳 등의 무허가 축사도 40% 정도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AI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독초소를 늘리고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입식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입식절차도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말했다.

한편 옮겨올 전국적으로 14건의 AI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전남은 11건이다. 이로 인해 40개 농가에서 키우던 81만2000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했다.

김정환 기자



시리게 푸르른 겨울하늘 한파가 물러가고 완연한 영상의 기온으로 따뜻한 날씨를 보인 지난 15일 미세먼지 주의보와는 달리 강진군 성천면 월남마을에서 바라본 월출산이 눈이 시리도록 맑은 하늘과 어우러져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전라도 방문의 해’ 기념 ‘남도여행 상품’ 日서 인기

전남도는 광주시, 한국관광공사 후쿠오카지사(지사장 임용욱)와 공동으로 2018 전라도 방문의 해'를 기념해 기획한 방한(訪韓) 상품이 일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화제가 된 여행상품은 처음가는 한국 남도여행 상품'이다.

일본 후쿠오카에서 출발해 순천, 담양, 광주, 목포, 영암, 나주, 여수 등 전라도 주요 도시를 방문하며 담양떡갈비, 남도한정식, 대동밥, 불나 등 향토요리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2018 전라도 방문의 해' 기념으로 일본 내 전남광주지역 상품화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기획한 상품으로 큰 반응을 얻어 현재까지 3회에 걸쳐 총 150여 명이 이용했다.

북한 미사일 정국 및 한일관계 냉각으로 침체한 최근 일본인 방한관광 시장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 현지의 반응이다.

전남도와 한국관광공사는 남도 여행상품

판매에 맞춰 지역 유력 방송사인 RKB 마이니치방송'에 전남도 관광 특집 프로그램을 기획, 방영해 전남광주 지역에 대한 관심과 여행심리를 고조시켰으며, 당초 올 1월까지 설정된 여행상품 판매 기간도 3월까지 연장한 상태다.

여행상품에 참가한 일본인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 부산과는 다른 한국다운 전원풍경이 인상적이다', '식사가 매우 훌륭하다', '좀처럼 보기 힘든 남도투어다' 등 호평이 쏟아졌다. 전라도 방문의 해'를 계기로 일본인 관광객 유치 확대 가능성에 기대감을 갖게 했다.

김정환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듣는다

내일 오후 광주전남인론 합동인터뷰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광주를 방문, 광주·전남지역 언론사들과 합동 인터뷰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인 이 총리는 이날 (사)광주전남인론포럼(이사장 박준호 동산대 교수) 주관으로 광주시 서구 회재로 905 광주시청지미디어센터 다목적홀에서 오후 3시30분부터 5시까지 90분 동안 합동 인터뷰를 한다.

지난 2017년 5월 31일 취임한 이 총리가 광주·전남지역 언론사들과 합동 인터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인터뷰는 광주mbc 김낙곤 보도국장이 사회를 맡고, 남도일보 김우관 전남 서부권취재본부장·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광주CBS 권신오 보도국장·뉴스시구길용 광주전남취재본부장 등 4명이 질문자로 나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총리는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국방·기타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질문에 답변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 군공항이전 문제와 전라도 명명 1천년 기념 사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신안 흑산공항 건설 등 지역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 총리는 이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자치분권형 개헌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총리는 지난해 취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에게 명명하신 것은 '내각다운 내각'이며, 내각다운 내각'은 유능하고 소통하며 통합하는 내각이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주춘성 기자



파열음

국인의당 통합 반대파 의원들로 구성된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소속 이용주 의원은 14일 개혁신당 창당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문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국민의당을 전면 쇄신해 재창당하는 길과 새로운 개혁신당의 길을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당 분당 사태가 가시화하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용주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당 지지기운동본부 박지원·장동영·전정배·조배숙·최경환·박주현·장성숙·유성범·윤영일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는 19일 오전 8시 전체회의를 진행한 뒤 17일 오후 2시 전주 교육대학에서 개혁신당창당전북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관련 인사들의 추세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자료사진=뉴스시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아제는 평창상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 올림픽 2018. 02. 09~02. 25(17일간)
- 패럴림픽 2018. 03. 09~03. 18(10일간)